



이달의 제언

한국 낙농의 미래는 있다



황 병 익
농도원목장 대표

1. 정지된 낙농시계

최근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도원목장의 옥수수 엔실리지 kg당 생산원가가 35원이라고 밝혔더니, 금세 조사료 자급에 대한 월간 낙농육우에서 원고청탁이 들어왔다. 우리 목장이 유업체를 옮긴후 수년간 책자를 받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로 오랜만에 낙농육우지와 다시 만나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년전인 92년 4월부터 필자는 '내가 지은 후리스틀우사'란 제목으로 낙농육우지에 낙농시설의 자동화와 전산화에 대해서 연재를 한적이 있다. 당시만해도 목장에서의 컴퓨터 활용과 자동화의 적용이 낯설던 때라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내 생애 가장 열심히 정열적으로 일했던 때였기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뭉클해 지기도 한다. 그때의 추억도 되새길겸 책꽂이에서 온통 먼지를 쓰고있는 92년도의 낙농육우 책자를 넘겨보니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띈다. '환원유 유 논쟁' '사료값 추가인상 저지' '낙진법 개정활동 활발추진' 등 낙진법을 올렸던 쪽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김정용 축산국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무척 인상

적이다.

그런데 문득 옛날 책자를 넘기며 「5년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농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수가 없다. 이미 환원유는 생산이 되어서 시판까지 되고 있으며, 농가는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어도 사료값은 아직 영세율 적용도 못 받은채, 그리고 아직도 이어지는 낙진법 논쟁, 이 낙진법만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결국 5년전의 책자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사료 회사의 광고모델로 나온 텔런트의 모습만 바뀌었을뿐 한국낙농이라는 시계는 5년동안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 같다.

2. 조사료로 본 한국낙농

외국의 수입농산물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요즘, 젓소들이 먹는 조사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에는 알팔파, 톨페스큐, 버뮤다, 오차드등 우리가 그동안 책에서만 보아온 온갖 이름의 수입건초들을 이제 누구나 쉽게 접할수 있게 되었다.

그 덕택에 목장에서의 조사료 자급도는 점점 낮아

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요즘엔 사료포 한평도 없이 수백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기업농도 탄생하고 있으니, 농기계 하나 구입하지 않고 힘들게 농사지를 필요도 없이 구입조사료 만으로 목장을 경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란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반박할 만한 경제논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논리를 펼칠 필요도 없이 최근 젖소 수송아지의 가격이 20만원대로 떨어지고, 급격한 환율인상과 미국내 기상이변으로 수입조사료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자 우선적으로 조사료 자급도가 낮은 목장부터 목장경영에 큰 타격이 오게됨을 우리는 쉽게 알수가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 불어닥친 기상이변이란 금년초에 발생한 폭설과 홍수의 피해인데, 이때문에 미국내 건초생산량이 감수된것이 아니라 눈에 덮힌 목초지에서 소를 방목시키지 못하게 되자 보관해두었던 알팔파 건초를 자국내 소비용으로 소진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의 파급으로 국내에 까지 건초 품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내 2주일간 건초 소비량은 한국의 1년간 건초소비량과 맞먹는 양이다. 아무튼 홍수는 미국에 불어닥쳤는데 그 피해는 한국의 낙농가들이 떠맡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우리의 농업이 언제부터 미국의 영향권에 종속되어 버렸는지 이를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한심함을 금할 수가 없다.

3. 한국적 낙농 구도

원칙적으로 목장의 사육두수와 조사료 생산능력(자급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있기에 조사료 생산계획에 맞추어 사육두수를 결정하는 것이 옳으나 그것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이고, 우리나라처럼 농민이 낙농을 하기엔 지가가 너무 비싸서 좁은 면적의 열악한 환경에서 목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낙농은 곧 지력이다'는 등식을 파괴하지 않

이미 한원유는 생산이
되어서서판까지 되고 있으며, 농가는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어도 새로값은 아직
영세율 적용도 못받은채, 그리고 아직도 이어지는
낙진법논쟁, 이 낙진법만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결국 5년전의 책자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새로희사의 광고모델로 나온 탤런트의
모습만 바뀌었을뿐 한국낙농이라는시계는
5년동안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 같다.

고는 도저히 목장을 유지할 수가 없다. 향후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낙농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목장마다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적정착유두수(40~50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성있는 우유 납유량(1000kg~1500kg)이 유지되어야만 하겠다.

어느 경제학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900원에 가까운 원화의 대달러 환율이 향후 1500원대 까지 올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과장된 얘기일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경제가 국제 경쟁력이 없는 거품 경제란 뜻이기도 하다. 지속적으로 환율인상이 된다고 가정할때 금년내로 알팔파 건초의 농가 도착도는 kg당 400원대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는 곧 수입 알팔파를 목장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제 우리 낙농가들도 수입의존에서 탈피하여 옥수수 엔실리지와 벧짚 그리고 기타 부산물로만 젖소를 사육하겠다는 주체적 발상전환이 필요한 때다.

4. 조사료 생산의 실제

우리나라의 조사료 생산중 옥수수 농사가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가장 높으며 비교적 기계화의 적용이 손쉽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옥수수 엔실리지 kg당 생산원가를 우리목장의 예



이달의 제언

로 들어보면,

옥수수 생산면적 3만평(10ha)

수확량 500톤 기준

종자, 농약, 비료대 2,900,000

작업비용 - 인건비 1,630,000

감가상각비 10,830,000

(트랙터 2,580,000+농기계 8,250,000)

기타 - 수리비+관리비 1,500,000

합 계 16,860,000원

16,860,000원 ÷ 500톤 = 34원/kg (지가계산 제외)

* 트랙터(수명10년): 50HP, 74HP2대 (사용시간 합계 272시간)

* 농기계(수명5년): 액비살포기, 쟁기, 로타리, 파종기, 진압기, 제초
제살포기, 비료살포기, 하베스타, 트레일러등

* 인건비: 작업시간 272시간 × 시간당 인건비 6,000원

후작으로 절반(5ha)의 면적에서는 연맥을 또 나머지 (5ha)에서는 호맥을 심고 있다. 이렇게 옥수수+연맥, 옥수수 + 호맥으로 작부체계를 이원화하는 이유는

첫째, 파종 및 수확일정의 이원화로 농번기 노동의 집중화 현상을 피할 수 있고,

둘째, 퇴비의 시기별 분산살포로 인하여 하절기동안 저장퇴비의 양을 줄일 수가 있으며,

셋째, 옥수수 후작물인 연맥과 호맥의 수확이 봄과 가을로 나뉘게 되므로 생초나 엔셀리지 이용이 계절별로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작부체계의 이원화는 제한된 포장에서 조사료의 생산성을 극대화할뿐 아니라 적은 노동력으로 목장을 운영해야하는 전업농의 노동력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

5. 부산물 사용의 가능성

우리나라의 경우 목장에서 옥수수 농사를 몇 만평씩 지을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운이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은 목장은 극소수이기에 수입조사료의 값이 천정부지인 요즘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부산물로 대체 조사료를 찾는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마침 필자는 수년전에 제주도의 한 농가에서 밀감



박을 다량 사용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관찰할 수가 있었다. 이 목장은 전국적으로도 고능력우사육으로 꽤나 알려진 목장이었는데 축주는 "옥수수엔셀리지 없이는 젖소를 길러도 밀감박 없이는 젖소를 못기르겠다"는 말을 할 정도의 밀감박 예찬론자이다.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다가 집에 돌아와 영양 분석표를 확인해보니,

밀 감 박	DM	TDN	CP	Ca	P
	22.4	18.4	1.7	0.1	0.02
옥수수엔셀리지	25.2	16.5	2.5	0.02	0.07

이렇듯 놀라울 정도로 밀감박의 영양구성은 옥수수 엔셀리지와 흡사한 고에너지 사료임을 알 수가 있다. 두당 20kg 정도의 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며 밀감박이 주스 공장에서 산업폐기물로 취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활용가능한 저렴한 부산물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듯 국내 부산물의 효율적인 사용은 땅이 부족한 목장에서도 낙농을 가능케하고 기존목장에선 더 많은 젖소의 사육을 가능케하여 줄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많은 부산물이 존재하리라 생각되며 이의 발굴과 연구야말로 한국낙농의 발전을 위한 학계의 책임이요, 몫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지난해 초겨울 잦은 비로 인하여 벧짚수거에 어려움이 생기자 많은 농가들이 벧짚 급여를 포기하고 수입산 스트로우로 대체한 적이 있다. 흙몬은 벧짚을 먹이느니 깨끗한 스트로우를 먹이려는 축주의 애착심

을 모르는바는 아니나 아직도 논바닥에서 썩어가고 있는 벼짚을 바라보면 한국낙농의 경쟁력도 함께 썩어가는것 같아서 마음이 아픔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의 벼짚수거 방법이 잘못 되어 있어서 몇년에 한번씩 꼭 이런 벼짚파동을 겪게 되는데 앞으로는 벼수확(추수)과 함께 즉시 벼짚을 포장 수확내지는 발효화하는 방안의 연구가 간절히 필요한 것 같다.

6. 한국낙농의 미래는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 를 추종하는 비교우위론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타국의 농산물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한국낙농의 미래는 존립무용론(?)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희망없는 낙농업을 하루빨리 포기하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경쟁력을 갖는 유리한 산업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속담에 '사흘굶고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없다'는 말이 있다. 굳이 식량안보론 같은 심각한 말을 사용치 않더라도 우리처럼 식량 자급률이 30퍼

센트밖에 안되는 세계에서 보기도문 식량부족국에선 먹거리의 문제는 생존권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70년대 과거 소련의 인권문제와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소련에 곡물수출을 금지시킨 바가 있다. 이런 식량의 무기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력이 더욱 강해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종교와 이데올로기까지 파괴시킬만큼 그 힘이 우선되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남의 얘기로 듣기엔 상상만해도 끔찍하지만 우리가 요즘과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흙문은 벼짚이라도 먹여가며 포기하지않고 목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한국낙농의 미래는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훗날 통일후에 생길수 밖에 없는 거대한 부양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고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분단된 땅에 태어난 우리 낙농가들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소명이요, 역사적 책임일 것이다. ☺

(필자 연락처 0335-34-3901)

기성초지 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공고(2차)

초지법 제 2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초지대리관리자를 지정코자 공고함.

1. 공고기간 : '97. 4. 1 ~ '97. 4. 20
2.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청자격 : 본시 축산과로 문의 바람.
☎ 0443 - 40 - 6392

4. 공고 대상 초지

소재지			조성현황		소유 (관리)자		비고
읍면	리	지번	면적	년도	주소	성명	
봉양	구곡	98-10	69,440m ²	'86	봉양 구곡 3	김진두	(사유지)
		85	10,711	"		"	(사유지)
수산	오티리	51	38,646	'86	수산 오티리	이대길	(사유지)
		51-1	19,141	'84		"	"

1997. 3. 24.

제 천 시 장